

특별기획

군산 전북도민체육대회 오늘 개막

군산시 약수터 먹는물로 적함

군산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구암동 오리알 약수터 및 임파면 남산 약수터에 대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4분기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소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이 47개 전 항목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군산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구암동 오리알 약수터에 설치된 자외선 살균기 UV램프 필터 교체와 시설물 점검 및 주변 환경 정비, 분기별 수질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체계적 홍보로 보이스피싱사기피해 막아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최근 도내에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예방 일환으로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추진, 수건의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예방해 주민에게 큰 효용을 얻고 있다.

특히, 이것은 평소 지구대 경찰관들이 관내 모든 은행을 직접 방문해 은행직원들에게 의심스러운 무조건 신고하라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 이로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로 창인신원을 비롯한 관내 금융기관 32개소 중 80%(26개)은 관에서 플래카드와 배너를 설치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어린이안전체험관 개관식

군군산시는 오는 5월 4일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어린이안전체험관' 개관식을 갖는다.

어린이안전체험관은 교통·생활·재난·해상의 다양한 실전 체험을 통해 재난 대처 능력과 생활안전의 소중함을 배우는 실질적인 안전체험장이다.

체험관은 교통안전 체험시설, 태풍·지진 등 재난·재해안전체험 화재·전기·가스 등 생활안전체험시설, 해양안전 체험관, 슬로프 탈출체험관, 교통체험학습장 등으로 운영된다.

이번 어린이안전체험관 개관은 최근 정부에서 이슈되고 있는 대국민 안전 불감증 해소 및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해 체험형·현장형 안전교육이 가능한 체험시설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다.

/*군산=문정곤기자

학생·청년·일반부 35개 종목 14개 시·군 1만 778명 참가 내달 1일까지

2016 전북도민체육대회가 '함께 뛰자! 군산에서, 함께 열자! 전북이!'란 슬로건으로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스포츠명품도시 군산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도민체전은 학생부, 청년부, 일반부에 걸쳐 총 35개 종목에 14개 시·군 1만 778명(선수 7,857명, 임원 2,291명)이 출전한다.

개최종목은 지난해에 비해 전문체육 분야에서 농구, 레슬링, 복싱, 바둑 등 4개 종목이 증가했다.

종합순위는 종전 일반부 체점 기준에서 올해부터는 학생부 점수를 종합 체점에 포함해 결정되며, 시상은 1위에서 5위까지 종합시상과 우수 시·군 입상상, 화합상, 특별상 모범경기

단체상도 주어진다.

군산시는 이번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통해 스포츠명품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이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는 한편 노후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여 월명주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전광판 설치, 내부 보수 및 외부도색, 주변 산책로 및 육상트랙 보수를 완료했다.

또한 월명테니스장의 경우 하드코트 5면과 스탠드 보수, 금강체육공원 야구장 그물망 보수 및 보강 공사, 월명 씨름장을 신축하는 등 선수들이 최상의 시설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했다. 개막식에는 시민과 선수단을 위

한 다채로운 축하공연을 마련했다.

1부 행사에서는 대회기 제막과 선수·심판대표 선서, 성화점화, 전부의 노래 합창 불꽃놀이, 레이저 쇼 등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2부 행사에서는 국내 정상급 인기 연예인들이 총출동하는 축하공연을 펼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장은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전북도민체전이 새만금의 도시 군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온 시민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감사의 손편지 메들리·원불교 100주년 대각 빵 나눔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감사의 손편지 메들리 행사와 원불교 100주년 대각교절 대각 빵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손편지 메들리는 교내 도서관과 학생회관, 새천년관, 한의대 앞에 설치된 부스에서 편지지를 나눠주고, 부스에 설치된 우체통으로 5월 2일까지 편지를 받아 사방이 담긴 선물과 함께 무료 발송해주는 행사로 가족이나 은사, 자녀 또는 제자들에게 격려, 감사, 존경의 편지를

쓰도록 함으로써 서로에게 소중한 마음을 느낄 기회를 얻도록 마련했다. 또한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편지 및 봉투와 함께 원불교 100주년 대각교절을 경축하는 '대각 빵 나눔' 행사를 벌여 원불교 100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대각 빵 나눔 행사에는 신명국 이사장파 보직교수, 총학생회장 등이 학생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직접 빵을 나눠 주는 등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의 축제로 진행됐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 모 초등학교 집단 식중독 의심증세 보여

보건소 역학조사반 투입 점심 급식 등 샘플채취 감염경로 파악중

익산시 어양동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19명 중 6명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여 가검물 채취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28일 현재 6명 중 3명은 병원에 입원 안하고 집에서 간병중이며 나머지 3명은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익산시 모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 19명이 설사 의심증세(9명 결석, 7명 조퇴)를 보였다.

바로 익산시 보건소는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지난 28일 점심 급식 등에 95건 가검물 등의 샘플채취 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27일 점심부터 학교당국은 학교자체 대책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를 학부모들에게 통해 SNS 문자와 교사의 직접 학부모 통화를 통해서 식중독 의심을 설명했고 27일 점심은 우유급식을 중단하고 빵과 물을 구매해서 점심식사 대체했고 28일부터 도시락을 가져오길 권유했으며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상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28일 현재 학교관계자는 "병설유치원생 123명과 초등학생 528명 등 649명 중 6명 설사의심판자 중 3명은

학교등교하고 나머지 학생 3명은 집에서 쉬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조퇴한 학생들을 상대로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사증세 등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긴급히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며 "현재로서 어떤 원인에서 발생했는지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지난 27일 현재 급식을 중단하고 학부모들에서 설명하고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권유한 상태이고 추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근대골목길 festival' 개최

다음달 6일~8일까지

군산시가 관광객에게 추억의 골목문화체험으로 세대간 소통과 근대역사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근대골목길 festival' 행사를 개최한다.

'근대골목길 festival'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봄 여행주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군산 근대거리의 초원사건관, 동국사, 교무당, 일본식 가옥에서 타파바치기, 고무줄놀이, 사방치기, 바닷놀이 등 근대골목놀이 체험과 미션수행으로 참여의 기쁨과 미션스탬프 완성의 재미도 느끼고 기

념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행사기간동안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투사를 잡기 위한 상황극 '독립투사를 보호하라'를 비롯해 '근대역사 석고미션', '추억의 거리잡매', '장돌뱅이 한바탕 공연' 등 관광객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체험부스를 운영해 관광객에게 무료로 근대복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특산품과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프리마켓 등을 운영한다.

특히 여행주간 군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근대골목 미션수행자에게 선유스카이라인 무료이용권과 이용료 20% 할인, 관광유람선 승선료



20% 할인,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세빌호텔군산 등 숙박료 할인, 군산시 대역사박물관과 연계해 가맹점 1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산=문정곤기자

법사량위원 군산·익산 연합회 자문회의 개최

법무부 법사량위원 군산·익산지역 연합회(회장 김동수)는 최근 2016년도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형길 지청장 신현성 형사부장검사, 양건수 형사2부장검사의 군산지청 검사 11명과 법사량위원 김동수 회장 김홍국 자문위원 장, 부회장(김정훈, 황원일, 김근성, 조성용), 강성기 운영실장 외 법사량위원 7명 및 강성국 자문위원 외 22명 총 51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리

성국 위원 (백광산업(주) 군산공장장), 권병수 위원 (세방(주) 중부지역본부장), 노남원 위원 (서안주정(주) 이사), 황재민 위원 ((주)한솔홀랜드 익산공장장)등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재단법인 법사량 군산·익산 지역장학회의 현황 보고와 추후 계획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의 내용은 2015년도 군산·익산 탁발·다문화 가정 청소년 20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과 재단법인 법사량 군산·익산지역장학회 자문위원 기부내역' 등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군산을 찾아온다.

군산예술의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예술의전당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양방인Evdution2016, 양모양모 콘서트, 굿모닝 광대굿 뮤지컬 발매 등 총 4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된다.

8월에 선보일 양방인Evdution2016은

각종 CF 및 국가행사에 빠지지 않는 작곡가 겸 뉴에이지피아니스트 양방인의 콘서트로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양모양모 콘서트와 굿모닝 광대굿 공연을 하우스 콘서트 형식으로 운영해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무료로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군산=문정곤기자

seeseri Clean UP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오래 써면 피드백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속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정소액 [팩스]

씨서라를 통해 불쾌하고 불편한 냄새가 없어졌어요

씨서라가 어떤 일을 할까 찾아주세요!

수령금 없이 배민나가 있어도, 배송비 지출없이 가능합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에서 핵심입니다